

Robert Vannoy 박사 , Kings, 강의 1

© 2012,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소개 – 제목 저자 및 날짜

코스소개

나는 이 강좌의 입문 부분을 위해 오늘 밤 이 글을 읽는 것 이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통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모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자체와 그 내용을 살펴본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은 자신의 메모에만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개 자료를 위해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가. 제목 : 왕들

가장 먼저 논의하고 싶었던 것은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말라킴”, 즉 “왕들”입니다. 다니엘 봄버그(Daniel Bomberg , 1516-1517)가 베니스에서 출판한 히브리어 성경 판이 나올 때까지 이 책이 히브리어 본문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이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칠십인역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으로, 열왕기와 사무엘서를 하나의 위대한 역사 작품으로 묶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통치서” 또는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했습니다. 제목은 벌게이트에서 이 표현을 “하나, 둘, 셋, 넷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현대 언어 성경 모두에서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방식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나는 그것이 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벌게이트에서 제롬이 사용한 제목인 “하나, 둘, 셋, 네 왕”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 전통에서는 이러한 제목이 여전히 사용되므로 주석을 찾아보거나 독서 중에 “왕 셋”에 대한 언급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삼왕”은 우리의 열왕기와 동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게이트에서는 사무엘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왕으로 불렀고, 그 다음 열왕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벌게이트에서는 사무엘과 열왕이 일종의 단위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 하나 둘 셋 넷.

히브리 전통에서는 사무엘서를 사무엘이라 부르고 열왕기를 왕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그 책을 따릅니다. 하지만 원래는 두 권의 책이 하나의 단위였습니다. 사무엘상 한 권과 열왕기 한 권이 있습니다. 두 권으로 나눈 것은 70인역에서만 이루어졌지만, 그 후 70인역을 통해 히브리어 본문의 후기 판으로 다시 들어왔으므로 현재의 히브리어 본문은 열왕기 두 권과 사무엘서 두 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독창적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두 책의 소재가 본질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분열은 열왕기상 22:37에서 아합이 죽은 후, 22:30에서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비록 적절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다소 임의적인 곳에서 일어난다. 이제 북방 왕은 아합이요 남방 왕은 여호사밧이더라. First Kings의 마지막 장에서 두 명의 주요 왕의 죽음이 나오므로 적절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통치에 대한 기록(22:51-53)은 열왕기 첫째의 끝과 열왕기 둘째의 시작과 겹칩니다. 엘리야의 삶도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지만 천국으로 승천하는 이야기는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은 다소 임의적이지만 합리적으로 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 단위로 볼 때 이 책은 구약의 정경에서 이전 선지자들 사이에서 잘 정의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전 선지자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유대인 명명법 또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이전 선지자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함께 가나안에 포로되기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묘사합니다. 그 일은 모세가 죽은 후에 시작되어 이스라엘의 독립을 종식시킨 에월므로닥이 뒤를 이은 느부갓네살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열왕기는 다윗의 통치의 종말, 솔로몬 치하의 영국, 그리고 분열된 왕국 전체를 묘사합니다.

B. 일반 내용 – 3단 구조

알겠습니다. B는 '일반 콘텐츠'입니다. 열왕기는 포로기 이전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기간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1-11장은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통합된 솔로몬의 통치를 설명합니다. 둘째,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즉 북왕국이 앗수르에게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기까지의 분열왕국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가 두 번째 주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하 18-25장으로, 그델라 (왕하 25:22-26)와 여호야긴(왕하 22:25, 27-30) 에 관한 두 가지 보충 자료와 함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유다 왕국이 있습니다 . 이제 내가 유다 왕국이라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의 유다 왕국은 북방 사마리아가 함락된 후부터 끝까지, 주전 722-721년부터 주전 586년까지의 유다 왕국이니라. 섹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두 왕국의 역사가 별개의 서술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고 오히려 병행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하여 특정 왕의 통치와 활동을 기술한 다음, 그와 동시대의 다른 왕국의 모든 왕으로 옮겨가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서론과 결론의 틀 안에서 각 왕에 대한 묘사를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입문 공식에는 일반적으로 계승 연령, 통치 기간, 통치 장소, 어머니 이름, 통치 평가 및 동기화의 6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즉, 그는 다른 왕국의 왕이 어떤 해에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과 동기화됩니다. 결론 공식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충 소스가 포함됩니다. "그래서의 나머지 행위는 다른 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망 발표, 매장지, 후계자 이름.

1. 각 왕의 입문 프레임워크 공식

이 체계의 예는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경우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사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칠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14장 29~3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들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치의 시작과 끝에 이러한 종류의 공식이 각 왕의 전체에 걸쳐 매우 표준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꽤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비야를 시작으로 또 다른 요소가 입문 공식에 도입되는데, 즉 다른 왕국의 통치와 동기화되는 요소입니다. 왕상 15:1: 아비야는 남방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먼저요, 그 다음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에 대하여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동기화입니다. 여로보암은 북방의 첫

번째 왕이었고, 그의 통치 제18년에 아비야가 남방의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의 이스라엘 왕 나답과 왕상 16장 10~11절의 유다 왕 아사와 엘라의 죽음의 해도 동일하다.

2. 각 왕의 평가 그러나 서문과 결론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왕이 여호와와 언약에 신실하였는지, 아니면 그 기준에 따라 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벤엘과 단에서 송아지 숭배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15:34. 오직 요람 (왕하 3:2)과 호세아(왕하 17:2)의 경우에만 심판에 약간의 칭찬이 포함됩니다. 북방 왕들도 이와 같으니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눈 후에 그 송아지를 벤엘과 단에 세웠으나 북방 왕들은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우상 숭배를 행하였음이라.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다소 미묘하지만, 그들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승인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찬양은 히스기야와 요시아에게만 주어집니다(왕하 18:24, 왕하 22:3, 23:8).

다섯 명의 왕이 자격을 갖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여호아스, 아사랴, 요담. 그 다섯 왕은 기본적으로 선한 왕이었지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반대는 북왕국의 아합에게 주어졌습니다. 열왕기 16:29-34, 남쪽의 므낫세, 열왕기하 21장.

3. 공식의 날짜를 정하는 것에 대한 논쟁 이것은 여러 왕의 통치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고 결론짓는 공식입니다. 비록 그가 법원 기록 보관소에서 그 안에 포함된 정보의 세부 사항을 수집했을지라도 이러한 기본 공식은 저자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출신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우베리히*를 보세요 *Geschichte* 1943.”

그것은 Martin Noth 의 *전통 역사 연구*입니다. 영어 번역은 *Deuteronomistic History* *이며*, 1981년에 번역되었습니다. 매우 영향력 있는 글입니다. 마틴 노스 (Martin Noth)는 이러한 서론과 결론 공식이 열왕기의 최신 자료이며 이전 자료가 설정된 최종 틀을 구성한다고 제안합니다.

반면에, Alfred Jepsen, *The Sources of the Books of Kings* (1956)는 정반대의 관점을 채택합니다. 그는 기본 자료가 두 왕국의 연대기 자료를 포함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공시 연대기"로 지정하는 것에서 유래한 현재 열왕기의 가장 오래된 자료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작품을 분열 왕국 시대 말기에 살았던 한 성직자의 작품으로 여깁니다 . 이는 이후의 편집자들이 다른 소스에서 온갖 종류의 자료를 삽입하는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Jepsen은

이 연대기를 히스기야 시대까지의 두 왕국의 역사를 요약된 형태로 담고 있는 현재의 열왕기의 핵심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면 우리는 너무 큰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에 너무 많이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4. 더 가까운 부문 - 영국 - 열왕기상 1-11장

첫 번째 주요 부분인 열왕기상 1-1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론 부분인 1장과 2장, 결론 부분인 11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부분 사이에 3-10장이 있으며 중앙에는 "A"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3장과 4장. "B"는 성전과 왕궁의 건축, 5-9장; 그리고 "C"는 그의 번영과 부(10장)입니다. 독자는 저자가 마지막 장에서 솔로몬의 삶과 활동의 어두운 면을 배치하기 위해 이 자료를 배열했음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특히 11:14ff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배열은 엄밀히 말하면 연대순이 아닙니다. 이는 대부분 이전 및 다음 구절보다 훨씬 이전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음, 이것이 첫 번째 섹션의 구조입니다. 열왕기상 1-11장은 솔로몬과 영국의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5. 두 번째 분열 - 열왕기상 12-2열왕기 17장 - 분열된 왕국

두 번째 주요 부분인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은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이는 솔로몬의 죽음부터 기원전 722년 북왕국의 앗시리아 포로까지 이어진다. 이것은 세 부분 중 단연코 가장 큰 부분이다.

이 자료를 하위 항목으로 나누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자료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약 40년의 역사 기간에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주요 부분인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은 솔로몬의 죽음부터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까지의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두 왕국의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며,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두 왕국이 동시에 계승되는 경우는 단 한 번뿐입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요람 과 유다의 아하시야가 같은 날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입니다. 왕하 9:21-28. 따라서 예후의 혁명은 이 부분, 즉 열왕기하 9장에 대한 주요 구분점을 제공합니다. 2장과 3장의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문제는 자료를 어떻게 더 나눌 것인가이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의 상당 부분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시작되고, 엘리사의 시대는 왕하 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에 대한 세 가지 주요 방향을 제시합니다.

1) 열왕기상 17장, 엘리야; 2) 열왕기하 2:1, 엘리사; 3) 열왕기하 9장, 예후.

이것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의 세 부분입니다.

그것을 분해하려고 노력 하십시오. 모든 동기화, 북쪽 왕과 남쪽 왕의

규칙 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이고, 열왕기하 2장은 엘리사이고, 열왕기하 9장은 예후입니다. 예후는 중요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일종의 주요 구분점을 제공합니다.

엘리야 이전과 관련하여 적절한 구분 지점은 열왕기상 14장의 결론입니다. 12-14장은 분열 왕국의 처음 두 통치자인 여로보암 1세와 르호보암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5-16장은 엘리야가 처음 등장할 때까지의 두 후계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17-19장은 엘리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1장 20-2장은 엘리야의 이야기와 아합이 다메섹의 시리아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8장은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열왕기하 9~10장은 예후의 혁명을 묘사한다.

6. 유다의 마지막 날 – 열왕기하 18-25 장 열왕기하 11-14장은 유다의

요아스 와 아마샤의 통치와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를 다룬다. 열왕기하 15~17장은 북왕국 의 마지막 날 과 당시 유다의 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주요 부분인 열왕기하 18-25장은 히스기야 통치부터 시작하여 므낫세와 요시야의 중요한 통치를 포함하여 유다 왕국의 마지막

날에 관한 것입니다. 좋아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입니다. 이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C. 저자 및 출처 1. Jeremiah et al.

"C"는 "저작자 및 출처"입니다. 첫째, 저자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는 결론에 도달할 근거를 정당화할 확실한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논의의 문제였습니다. 미쉬나에서는 예레미야가 열왕기상하의 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현대 학자 중 이것을 믿을만한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Gleason Archer는 *서론*에서 예레미야가 마지막 장을 제외한 모든 장의 저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흥미롭습니다. 그것을 쓴 사람은 누구든지 열왕기의 마지막 사건인 여호야긴의 죽음(왕하 25:27-30)을 출처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에서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왕의 식탁에서 식량을 공급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에월므로닥이 왕이 된 해, 포로 생활 37년 에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는 기원전 562년, 즉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약 25년 후입니다(왕하 25:27). 열왕기하 25장 27절을 보십시오: “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해 제 27 일 에 그가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내어 놓고 12 월. 그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에게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의 옷을 벗고 평생 동안 왕의 상에서 늘 먹으며 살았습니다. 왕은 여호야긴에게 그가 사는 동안 일정한 양을 날마다 주었더라.” 이제 그것은 그가 유배된 지 37 번째 되는 해, 즉 기원전 562년입니다.

요시야 왕 13년 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예레미야 1장 2절을 보면, “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제13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 예레미야는 아직 아주 어렸을 때 예레미야서 1장 6절에서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BC 640년에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20세였다고 가정한다면, 여호야긴이 풀려날 때 그의 나이는 85세였을 것입니다. 참고로, 기원전 640년은 요시야 왕 13년 입니다 . 만약 예레미야가 20세였다면 그의 출생은 기원전 647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647년을 562년과 비교한다면, 이는 여호야긴이 풀려난 해이다. 즉 예레미야가 85세가 된 그 시점에서 말이다. 여호야긴이 풀려남.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 새로운 지위를 누렸던 기간을 5년 더 추가하면 예레미야의

나이는 약 90세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열왕기상하를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첫째, EJ Young은 자신의 *서론* (188페이지)에서 여호야긴의 추방과 투옥에 대한 기사는 바벨론에서 기록되었지만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갔음을 기억하십시오(예레미야 43:1-8). 둘째,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 52장은 열왕기하 24장 18~25, 30절과 매우 유사하지만, 예레미야 51장 64절에는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 장의 마지막 문구는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나느니라”이고, 52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는 열왕기에 나오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레미야 52장과 열왕기하 24:18-25, 30은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은 공통 자료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록에는 약간의 언어적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저자임을 주장하는 아처는 열왕기 상하에서 예레미야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찾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예레미야가 저자로서 자신에게 관심을 끌지 않았을 것이라고 느꼈고 따라서 자신에 대한 언급을 배제했으며 이는 그가 작가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침묵에서 나온 주장이며 설득력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야긴과 동시에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있습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언급됩니다. 따라서 일부 선지자는 언급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레미야가 저자라는 증거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많은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열왕기의 저자임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2. 신명기의 열왕기의 문학비평판

문학 비평 학파 중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을 거쳐 열왕기까지 확장된 JEDP 자료를 찾으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Otto Eissfeldt가 이 견해를 옹호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에 대한 추종자가 거의 없습니다. 신명기 이전의 이 자료는 신명기의 편집자들에 의해 재구성되고 추가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비판적 생각은 신명기의 열왕기 판이 두 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원전 600년경으로 요시야가 죽기 직전이나 직후에 개정된 것으로 다양하게 간주되며, 그 다음에는 기원전 550년에 유배 기간 동안 작성된 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논의하세요. RK 해리슨 *구약 성서 서론*에서는 “두 명의 신명기 편집자의 가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의 불일치 정도는 이 이론의 기본적 약점을 가리킨다”(731쪽)고 지적합니다. 그 문제는 문헌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열왕기를 분석하면서 비평가들은 원본 자료와 이후의

신명기 편집 자료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더 독창적인 자료는 무엇이며, 이 자료에 대한 신명기적 편집의 두 가지 판이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분리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많은 불일치가 있는 정말 엄청나게 복잡한 자료입니다. 그것에 관한 책을 쓰는 사람은 각 구절이 무엇으로 식별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엔 저자가 선지자 계열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자를 모릅니다. 저자는 익명이지만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킹스는 실제로 역사에 대한 예언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종합한 선지자가 있었음에 틀림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저자와 관련하여 가장 지배적이고 현재의 생각은 마틴 노스(Martin Noth)의 신명기 역사 이론입니다. 마틴 노스 참조 *Deuteronomistic History* 는 1981년에 영어로 출판되었습니다. Noth 에 따르면 고대인의 신명기-역사 집단이 왕에 대한 자료를 선별하여 신명기적 역사 신학의 원칙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그의 견해로는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전체 자료에 대한 저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보세요, 그것은 요시야 시대에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이 신명기였다는 오래된 벨하우젠의 견해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부분 무시되거나 손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요시야 시대에 예배를 예루살렘에 집중시키려는 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요시야 시대 이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명기

역사가는 노스의 관점에서 신명기 1-4장을 그의 전체 역사에 대한 서문으로 추가했고, 신명기 29-30장도 추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신명기 자료의 이상에 따라 신학적 제시로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를 편찬했습니다. 이는 노스에게 있어서 열왕기 상·하의 포로기의 한 저자의 작품임을 의미한다. 저자는 신명기적 관점에 맞춰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존재했던 왕정 시대의 역사를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전통과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노스의 견해에 따르면, 열왕기 상·하의 틀은 서사자료가 통일된 구성으로 형성됨과 동시에 만들어졌다. 프레임워크의 작성자는 내러티브 자료의 작성자/편집자와 동일합니다. 이 작품은 한 작가의 손에서 신중하게 계획된 논문입니다.

이제 그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이론의 다른 측면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그는 이 책에 대한 통일된 계획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에서 신명기의 영향을 본다.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양한 왕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신명기적 관점에 따라 운영되는 역사서라는 점에 오늘날 비판적 학자들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3. 신명기적 비판적 접근과 바노이의 대응에 대한 논의

우리는 이 책의 이러한 특징에 동의할 수 있지만, “신명기” 또는

“신명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구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적인 집단에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신명기가 요시야 통치 기간 중 개혁 직전에 작성되었으며 이 개혁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전제에 기초합니다. 신명기의 개념은 새롭고 혁명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왕정 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개념입니다. 요시야 시대는 남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인 기원전 586년입니다. 물론 그러한 관점에 대해 심각한 반대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이나 저주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단지 신명기적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도 언약적이며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들 비판적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가 대부분 후기이거나 포로 이전의 자료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원래 모세 시대의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성경 자료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비평학파는 또한 예루살렘 예배를 중앙 집중화해야 한다는 신명기적 요구 사항을 중시하며, 이로 인해 온 땅에 걸쳐 산당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이 중앙 집중화 요구 사항은 신명기 12장에서 가르친 것으로 추정되며 기원전 621년경에 존재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12장이 실제로 단일 성소를 요구하는지, 유일하게 합법적인 예배가 하나의 중앙 제단과 다른 모든 제단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제단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나는 그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접근 방식의 관점입니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요구 사항은 각 왕을 판단하는 주요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2장이 예배의 중앙 집중화를 요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신명기와 그 저자의 연대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적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후기 기준에 따른 초기 왕들의 평가는 그들의 통치를 평가하는 인위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요시야 시대까지 신명기가 없었다면, 기원전 931년에 신명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남왕국의 초대 왕 르호보암의 통치를 신명기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가 300년 후인 BC 621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신명기를 기초로 르호보암의 통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비판적 입장과 신명기의 날짜가 621년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이 후기 기준에 의한 이전 왕들의 평가를 그들의 통치를 평가하는 인위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의 역사 작가는 역사의 사실보다는 그의 신학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의 신학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왜곡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의 저술은 신학적인 역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벨하우젠은 여로보암 1세가 왕국을 분할하고 베델과 단에 예배 센터를 설립한 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을 죄로 여겼던 것은 후기 유대인들뿐이었습니다. 당시 종교는 그들의 분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그것을 홍보했다고 제안합니다. 예루살렘 숭배는 아직 유일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서 제정한 것은 똑같이 옳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신들의 형상은 세 곳 모두에 전시되었으며, 실제로 하느님의 집이 있는 모든 곳에 전시되었습니다.” 즉, 여로보암 시대의 실제 상황은 신명기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표현과 크게 달랐다고 주장됩니다.

이로 인해 벨하우젠은 열왕기상 13장에서 여로보암의 제단을 대적하여 말한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의 전체 이야기의 실제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서 벰엘 에 있는 그 제단을 정죄하는 것을 보십시오 . 글썄요, 만약 그 초기에 벨하우젠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신명기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예배를 중앙 집중화한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왜 올라가서 예배를 정죄하겠습니까? 베델 제단에서요? 글썄, Wellhausen은 그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명기의 신학을 다시 읽으려고 노력하는 나중에 만들어진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아이디어가 고대의 아이디어였음을 암시하기 위해 전개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벨하우젠은 전체

이야기의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벨하우젠은 열왕기상과 하의 신명기 개정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판은 우리가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의 기초가 되는 자료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는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시아계 신명기에 따라 구성되는 책의 사실에 대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망명자들에게 그들의 상태에 대해 신학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요시아 시대 이전의 본문에서 신명기적 사상과 관점이 발견될 때마다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차적 삽입과 왜곡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저자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4. 출처로 사용된 왕들의 연대기

열왕기상하가 매우 긴 기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활용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서와 유다 왕들의 역사서였던 것 같은데, 흔히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 또는 유다 왕들의 역사책이라 일컬어진다..”

열왕기상 14장 19절을 보십시오. 꽤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이 참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은 여로보암을 논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전쟁과 그가 다스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작가는 독자들에게 다른 출처를 언급하는데, 아마도 누군가가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할 경우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3절은 또 다른 출처를 제공합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성읍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열왕기상과 하서를 통해 이 두 출처에 대한 언급이 33번 있습니다. 참고자료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보면 그것이 북쪽입니다. 역대기를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관되어 접근 가능하고 알려진 두 가지 출처, 아마도 법원 기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기에도 언급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저자는 열왕기상과 하서를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역대기가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출처의 성격에 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언급은 왕국이 분열된 후에야 시작되며 아마도 그 시점에 시작된 출처였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인 법원 연대기인지 아니면 공식 법원 연대기를 접한 누군가가 쓴 일종의 역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견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견해에 대한 언급은 그

견해를 참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식 법원 연대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료가 얼마나 쉽게 접근 가능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한 공식 궁정 연대기에 왕권을 얻으려는 음모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0절은 “시므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이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출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솔로몬의 역사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1:41에서 “솔로몬 연대기”라고 언급된 또 다른 자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글씨를 쓰는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순전히 실용적이고 선전적인 종류의 작업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정치적 설명만을 담고 있는 역사서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내용보다 내용이 더 광범위하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랜 논의가 있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릴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출처가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상 11장 41절에 언급된 솔로몬 연대기입니다. 열왕기의 저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자료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특히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광범위한 이야기와 같이 궁중 연대기에서 파생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열왕기의 자료의 경우입니다. 이런 종류의 자료가 단일 출처에서 파생되었는지 아니면 다양한 별도의 예언 기록에서 파생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HH Rowley는 이러한 출처를 예언적 전기로 분류합니다. 그는 이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사야를 다루는 일련의 이야기들에 더하여 우리는 열왕기상 22장에서 미가야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공식적인 궁정 연대기 외에도 작가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사야를 다룬 어떤 종류의 자료에 접근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엘리야와 이 선지자들이 이 책을 쓰면서 그 모든 자료를 함께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처가 무엇인지, 그 중 몇 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3. 작성일자

셋째, 작성 날짜입니다. 이 책은 여호야킨이 바빌론 감옥에서 석방되고, 암시적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바빌론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누렸다는 소식이 발표된 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야킨이 죽은 날짜를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월므로닥이 왕위에 오른 뒤인 BC 562년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562년 이후 그리 오래지 않아 이 책이 기록될 수 있었던 가장 빠른 시기일 것입니다. 재료.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책의 최종 내용이 이전의 원본에 추가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 시대의 어떤 것들이 “오늘까지” 계속 존재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유배 이전 시대의 작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8장 8절에서 우리는 법궤를 운반하는 데 사용된 채에 대해 읽습니다. 이 채들은 길이가 너무 길어서 내소 앞 성소에서는 그 끝이 보이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느니라. 열왕기상 8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이 파괴되고 법궤가 사라진 후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9장 20-21절에는 솔로몬이 헷 족속, 암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중에서 남은 사람들을 징발하여 “오늘까지” 노예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건의 성격상 유다 왕국이 계속 존재하는 한 적용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9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있었다고 하고, 열왕기하 8장 22절에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여 “오늘까지” 있었다고 한 진술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유다 왕국. 다른 유사한 참고 문헌은 문제가 덜하지만 종합해 보면 포로 이후 바빌론에 살았던 작가보다 포로 이전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작가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포로 이전 작업이 포로 이후에 추가될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포로 이전 작업이 언제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다 왕들의 연대기의 출처에 대한 언급이 여호야김 왕의 통치와 관련하여 인용되어 있지만 그의 후계자인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구성은 여호야김의 죽음과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 사이, 즉 포로로 잡혀가기 전 마지막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가정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은 유배 기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이 날짜와 저자에 대한 가능한 관점이지만, 이는 주로 “현재까지” 진술에 달려 있습니다. 대안은 이러한 진술을 열왕기의 최종 편집물이 아닌 원본 출처의 진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9절을 왕상 8장 8절과 비교하여 보십시오. 역대하 5장 9절에 “이 채들은 궤를 옮기는 채들이니 그 채들이 너무 길어서 그 끝이 궤에서 나온 것이라 내소 앞에서는 보이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8절, “이 채들은 길이가 길어서 내소 앞 성소에서는 그 끝이 보이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그대로 있느니라.”

이제 역대하 5장 9절을 열왕기상 8장 8절과 비교하여 보십시오.

역대기는 확실히 포로 이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도 문구는 똑같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연대기 작성자가 단순히 그의 자료인 열왕기상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Kings의 편집자/저자는 왜 그의 출처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까? 이것은 유배된 편집자가 이전 열왕기의 편집을 가정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유배지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저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여 저술의 통일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즉, “오늘까지”라는 진술은 저자가 단순히 인용한 출처의 진술일 수 있으며, “오늘까지”가 그 유배 기간까지 연장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이 책의 일부는 포로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의 투옥과 석방을 다루는 이 마지막 부분은 나중에 편집자에 의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우회하는 방법은 바로 이 제안입니다. 그 *이전* 의 종착역 은 기원전 539년 바빌로니아 포로의 종말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것이 임박했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책은 이 시간 이전에 최종 형태에 도달했어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종종 설득력이 없는 침묵의 논증이기도 하지만, 포로로부터의 귀환은 너무도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한 저자는 그것이 이미 구체화되었다면 그 종말에 대해 거의 침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은 것이 확실해 보이며 그에 대한

암시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멈추겠습니다. 소개 자료 중 일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유인물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첫 시간에 살펴보고 열왕기서에 들어갈 것입니다.

케이트 토틀랜드(Kate Tortland)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